

구라파와 미국의 부로일러



송 정택
 <가금협회 전무이사>

1. 구라파(Europe)

<생산>

1972년도 구라파의 계육생산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에 비해 5%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구(West Europe)의 생산이 동구(East Europe)보다 약간 높다.

1972년도 전반의 계육생산을 국가별로 보면 벨지움, 화란, 서독은 전년에 비해 감산추세를 보였으나 불란서, 이태리는 증산되었다. 서독, 화란에서는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적인 생산규제를 하기로 하고 그 수급조절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여타 E.C 여러나라에 파급되었다.

영국은 1971년 감산으로 경기를 조정하고 1972년에는 증산으로 전환 했으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놀웨이는 비교적 많은 증가를 보였고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는 통상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몇몇 나라에서는 현저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핀란드, 놀웨이, 동독의 소비량은 종래 1.8~5.8kg(1인당)의 낮은 소비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12~62%의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이태리(1971년 1.7kg)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은 전년도 수준에서 머물렀고 헝가리는 전년도보다 0.7kg로 약 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72년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서구보다 동구가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금후에는 서구라파도

다른 식육의 양등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가금육의 소비가 증가 될 것이 예상된다.

<가격>

1971년의 육계의 가격은 5개국은 가격상승을 7개국은 가격하락등으로 진폭이 높게 나타났다.

E.C국들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등에서는 70년, 71년, 2년간에 걸쳐 가격 하락을 나타 냈으나 영국, 폴투갈, 덴마크, 스페인은 1971년에는 가격이 상승 되었다. 서구의 주요 수출국인 화란에서는 1970년 1971년에 걸쳐 70%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수입국인 서독에서 국내가격이 낮아졌다. 대량수입으로 인해 국내 평균 시장가격은 약 3.9%나 하락 하였고 불란서는 연간 약 3% 벨지움은 0.6%의 하락을 보였다. 이에비해 이태리는, 같은 기간중에 약 4%의 가격상승을 보였다.

1972년 1/4, 4/4반기에 가격동향은 구라파 전체적으로 안정 되었으나 2/4, 3/4반기 에는 서독을 제외한 여타의 국가에서 경기회복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육계생산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1972년중에는 적절한 가격이 유지 되었다.

금후에도 적정가격이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영국에서는 현저한 회복을 보였으며 1973년 E.C가 확대 됨에 따라 영국의 육계생산업은 E.C권내에서 대규모 경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 시킬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있다.

결론적으로 구라파의 육계가격은 다른 식육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금후에 있어선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일 것이다.

2. 미국의 부로일러

연방 식조점사소(食鳥檢査所)의 집계에 의하 1972년의 부로일러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수당(首當) 도체중량(屠體重量)이 3.71파운드(1,685g)로 전년도 보다 약 2%로 정도 무거워 졌다는 것이다.

금년에도 증산 기조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작년 여름이래의 사료가격의 상승과 노임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오르게 됨으로 어찌면 1972년의 신장율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근래 몇달은 부로일러 가격이 지극히 강세를 보였으며 계육(鷄肉)외의 식육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72년도의 부로일러 사양수수는 신장 되었다.

미국 정부측은 1973년도 1/4, 4/4반기의 부로일러 출하량을 72년도 동(同)기간에 비해 3%의 증가로서 억제 하려고 하는것 같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로일러 부화수수를 전년 동기비(同期比)로써 2% 증가 해야만 한하는데 그 이유로는 최근 병아리의 생존율이 상승, (미국에

서는 부로일러 초생후에도 M.D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화수수를 통제하여야 된다고 한다.

가격동향은 생산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1972년도의 9대도시의 조리용 부로일러의 평균가격은 파운드당 28센트(kg당246원)로써 1971년에 비해 1센트(kg당 9원)가량 올랐었다.

미국도 가격동향에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계절적으로 변동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연말 경에는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가을에는 최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로일러의 시장조건은 반드시 견고하지는 않지만, 돼지고기의 공급이 원활치 않고, 소고기 등의 육가가 높고 소득의 증대등의 작용으로 1973년도 전반기의 육계가격은 아마도 72년도 동기에 비해 파운드당 약 1센트(kg정 9원)정도 상승 될 것으로 보는 측이 많다.

구나라의 부로일러 생산자 가격(평균)

국	명	단	위	년	분 기 별				비 고 <공정환율>
					1/4	2/4	3/4	4/4	
서	독	마크/100kg생체		1971	166.7	168.0	166.0	167.3	141.01원
				72	166.0	166.0			
불	란	프 랑/kg 도체		71	3.15	3.07	3.08	3.24	87.90
				72	3.02	3.07			
이	태	리 라/100kg생체		71	39,039	35,762	40,350	43,591	100리라 (69.71원)
				72	37,494	39,564			
화	란	후로링/100kg생체		71	145.5	144.9	145.9	143.6	
				72	145.2	146.1			
덴	막	크로네/kg 도체		71	620	630	649	665	65.08원
				72	665				
스	웨	멘		71	556	548	563	579	90.15원
				72	582	593			
영	국	파운드/kg 도체		71	0.14	0.15	0.14	0.13	978.40
				72	0.12	0.13			
스	페	인		71	34.93	38.65	36.13	38.88	
				72	36.03				
항	가	리		71	21.93	22.43	22.63	23.97	
				72	22.20	22.93			